

군경선교부
진중세례식

전선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

설레는 출발과 전선을 향한 여정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이른 새벽, 군선교 대원은 저마다의 집을 나서 교회에서 기다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전 7시 30분, 김주환 목사님의 간절한 출발 기도를 시작으로 우리를 태운 버스는 철원 십자군교회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군경선교팀이 정성껏 준비한 꼬마김밥과 간식을 나누며, 오늘 만나게 될 장병들에게 전할 하나님님의 사랑을 미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안보의 현장에서 마주한 분단의 현실

오전 10시 20분경, 전방 접경지에 다다른 일행은 군종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검문소를 통과해 최전방에 위치한 백골전선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는 박찬우 군목사님과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우리는 한마음으로 간절히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끊어진 금강산 철길 다리와 이어 멸공 OP에서 바라본 DMZ는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1992년 5월 22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한 무장간첩 3명 전원을 사살한 '은하계곡작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작전에 직접 참여했던 친구를 통해 이미 전해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다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당시의 긴박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작전에 목숨을 걸었던 친구와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이 마음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생명의 말씀

십자군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준비하던 중, 어디선가 병사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선교 대원들은 교회로 입장하는 용사들을 박수로 맞이하였습니다. 오후 2시, 김병학 군목사님의 인도 아래 자원한 용사들의 악기 연주와 함께 찬양이 시작되었고, 교회는 200여 명 장병들의 합창과 울동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준호 장로님의 기도인도와 권진영 권사님의 성경 봉독이 이어진 후, 아이네오 중창단의 찬양은 훈련에 지친 병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고, 성전 가득 울려 퍼진 화음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 김주환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광야의

시간 속에 선 장병들에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준 이 말씀은 백골용사들의 가슴에 든든한 영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감동의 세례 예식

머리를 짧게 깎고 무릎을 꿇은 용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군인의 강인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동시에 갖춘 그들이 "예!"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삶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선교 대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장병들의 머리에 맺힌 세례의 물기를 정성껏 닦아주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례 후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마주한 장병들의 환한 미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선교의 귀한 열매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군사가 되길

모든 예식을 마치고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속에는 믿음의 형제가 된 백골용사들과 군선교 대원들의 당당하고 환한 미소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번 진중 세례식은 단순히 물로 씻는 예식을 넘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네오 중창단의 찬양가사처럼, 백골용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가 준비되고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김주환 목사님, 전선에서 헌신하시는 군목사님과 군선교사님, 먼 길을 함께해 주신 장로님들과 군선교 대원들, 그리고 믿음의 군사로 거듭난 3사단 장병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군선교 사역은 몇몇 사람의 수고만으로 감당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일 때 더욱 힘 있게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군선교의 비전에 공감하며 기도와 참여로 동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성호 인수집사 / 군경선교부장